

## 알버타, 코비드-19 백신 재고 소진

2021년 1월 18일 미디어 문의

제이슨 케니 주 수상은 알버타의 백신 공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:

“알버타 헬스 서비스 (Alberta Health Services)는 현재까지 주 전역의 지속 요양 시설 (continuing care)에서 자격이 되는 의료 종사자, 직원 및 거주자들에게 거의 90,000 회 분을 투약했습니다. 우리는 코비드-19 예방 접종 속도에서 지속적으로 큰 주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.

“저는 또한 알버타 주 내 357 개 장기 요양 (long-term care) 및 지정 지원 생활 (designated supported living) 시설에서 1 차 예방 접종이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.

“그러나 연방 정부가 지난 주에 발표한 예상치 못한 공급 차질로 오늘이 끝날 때 썸이나 내일 이른 시간 썸이면 1 차 예방 접종을 할 백신이 알버타 주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.

“따라서 1 차 예방 접종을 위한 신규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, 이미 예약된 일부 1 차 예방 접종 예약은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며칠 후로 다시 약속이 잡힐 것입니다. 이미 약속이 잡힌 날에 2 차 예방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분량이 할당되었습니다.

“백신 출시가 시작된 이래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, 알버타 주민들의 팔에 필요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분량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. 미국, 영국 및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입수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.

“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는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. 화이자 선적이 앞으로 몇 주 동안 20~80 퍼센트 감소할 것이라는 1월 15일 자 뉴스는 우리에게 실망감만을 가중시키는데, 이는 우리의 예방 접종 계획을 상당히 늦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### 관련 정보

[뉴스 컨퍼런스 보기](#)  
[뉴스 컨퍼런스 사진 보기](#) (이벤트 종료 후 이용 가능)

### 미디어 문의

[크리스틴 마이엇](#)  
(Christine Myatt)

780-446-2179

주 수상실, 커뮤니케이션  
부국장/ 언론 사무관

(Deputy Director of  
Communications/Press  
Secretary, Office of the  
Premier)

“알버타 주는 현재 주당 50,000 회 분을 투약할 역량이 있습니다. 3 월에는 주당 약 200,000 회 분을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공급이 그것을 따라 잡지 못합니다. 불행히도 이는 원주민과 메티스 (Métis) 개인 및 75 세 이상의 노인을 위해 계획되었던 예방 접종이 보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.

“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분량을 인도 받으면 즉시 예방 접종을 늘리고 기록된 예방 접종 수로 되돌아 갈 위치에 있음을 알버타 주민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습니다. 백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”